



# 미얀마 김연규 선교사 2019년 4월 기도서신



##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께

항상 기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섭씨 43도 이상의 살인적인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은 미얀마 불교력으로 새해에 해당하는데 찐잔 물 축제(Chinthee Water Festival)는 새해의 큰 축제입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은 성경캠프를 3박 4일 동안 개최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두 명의 영혼들이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도해 왔던 신학교 개강이 6월로 다가 왔습니다. 효과적인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기가 없어 태양광으로 전기를 사용해 왔으나 신학교 개강을 앞두고 전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적은 숫자가 입학할 하게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얀마를 방문하여 말씀 사역과 음악사역 그리고 몸으로 전도처 수리 및 단장을 하여주신 독산동BBC, 큰빛BBC, 한마음BBC, 김남주 목사님으로 인해 교회들로 인하여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ABC 고아원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시골의 부모가 아이

들을 다시 불러 들어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루 1불을 버는 일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외된 아이들이 있는 산간 지방으로 다녀와 새로운 아이들이 고아원에 더해져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

## 기도제목

6월에 시작되는 미얀마 성서침례신학교의 재정적 필요와 학생 및 강사들을 위해서

레구 전도처 성도 우통린 형제를 위해서(정부군 탈영 후 곁혼하여 자녀를 낳고 생활하던 중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으나 군 당국에 체포되어 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가족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됨)

저희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